| 현불 논단 |

행복 근육을 키우자



법현 스님
열린선원 선원장
나가노 금강사 주지

경제 위기 · 안전사고 · 미세먼지 등
추운 겨울만큼 힘든 시민의 일상

현 난제는 어떤 원인서 비롯됐나
윤리 배제해온 과보를 지금 받아
개인 행복 튼실해야 사회도 행복

몸 건강하기 위해 근육을 키우듯
'행복 근육' 길러 스스로 행복하길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기온이 내려가고 있다. 공기 속 미세먼지만큼이나 여러 가지 삶의 먼지들이 뿌옇게 끼어서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 성장, 가계대출의 적정성, 정권 주도층의 분열, 새로운 촛불의 등장 등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람들의 발 역할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기쁜 소식을 날라야 할 KTX 사고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안하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딛고 4만달러 시대를 성큼 앞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이 긴요하다고 한다. 남과 북의 주민들이 나누어 쓰면 좋은 것들을 찾아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고도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다. 그런데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범위에서의 어려움도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런 고민이라도 속 시원히 털어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을 지도 모른다.

괴로움의 내용과 원인을 분석해 알아내고 괴로움을 떨어버린 상태 즉 최고의 행복, 지속 가능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여 지속하게 하는 길을 찾아내는 사성제의 가르침을 생각해본다.

현실 생활에 적용도 해본다. 지금의 난제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 해결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산업혁명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지구촌의 드문 나라 대한민국의 행복감이 낮은 상태를 극복하는 길을 무엇일까? 산업혁명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면서 필요악이라는 것을 저질렀다.

절차의 정의 즉 윤리를 코스마다, 레벨마다 적용해야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에서 생략한 것이다. 윤리를 배제하고 지나온 과보를 엄청나게 크게 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라 생각하겠지만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은 결과임을 잘 파악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눈과 귀를 통해 시행해온 나라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활용하는 것은 보통 사람, 시민이어야 한다.

시스템도 하나하나의 사람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의 심장을 통해 곳곳의 혈맥으로 흐르는 뜨거운 피가 가장 소중하게 효율적으로 사회의 체온을 높이는 수단이요, 목적이다.

가장 작은 단위인 한 사람의 행복이 튼실해야 사회의 행복도 튼실해져 사회 전체가 행복한 미소를 띠게 될 것이다.

면역력이 약해져 조금만 상한 것 같아도 탈이 나고, 아주 조금만 무리를 해도 감기몸살에 시달리는 몸의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맛있게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더 나아가 때때로 알맞은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키우면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도, 조금 덜 나가도 관계없이 튼튼하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행복의 근육을 키우게 되면 사회의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행복이 지속하게 될 것이다.

행복근육을 기르도록 하자. 취미생활과 공부 및 일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며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 이웃과 사회의 행복이 지속되도록 살펴보자.

나와 우리를 왕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괴로움(五盛陰苦)이라 한 말씀도 살펴보면서 해체가 답이라고 하는 말씀의 속뜻도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롭다고 하는 어떤 이의 공동체 삶도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튼튼한 행복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特別기고

원효의 발자취를 찾아 지난달 경북 일대로 순례를 다녀온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순례기를 보내왔다. 북칼럼니스트인 박사 씨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

원효 찾아 땅의 기억 더듬다



박 사
북칼럼니스트

무려 1300여 년 전 사람의 삶의 흔적을 더듬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다. 그의 삶은 반쯤 신화에 묻혀버렸고, 어디까지가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가 태어났다는 나무는 이제 없고 그가 태어난 동네의 유명한 밤나무숲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그 자리에 세워졌다는 절도 부지런히 현세의 사람들이 드나들며 손때를 묻히고 있을 뿐. 여느 동네 절과 다른 점이라고는 원효의 흔적을 내세운 푯말과 후세의 사람들이 그리고 만들어낸 기록뿐이다. 그런데 발자취라고?

그 때문인지 순례에 참가한 사람들이 여행에서 기대한 바는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는 말 그대로 원효의 사상을 공부하고 체험하기를 원했고, 그저 많은 절을 둘러본다는 데 의의를 둔 이도 있었다. 경주와 경산의 좋은 풍광을 둘러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원효를 상상하기 위한 코스가 될 수도 있을 터였다. 나는 경주와 경산의 절을 유람한다는 게 좋았다. 원효의 사상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원효에 대해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된 여행이었다.

먼저, 풍경이 있었다. 지금의 풍경은 당시 원효가 살았던 시절과 많이 달라졌겠지만 산세는 여전했다. 마을의 한가운데 있는 제석사도 마을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초개사도, 골굴사도, 기림사도 나름대로 옛 기억을 품고 있었다. 사람들이 부지런히 드나들고 수행하고 기도하며 닦은 기운도 원효의 시대에서 이어진 것이었다. 절 마당에서 보이는 풍경에 원효가 바라보았음직한 풍경을 겹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있었던 시절이 실감이 났다. 말 그대로 '발자취' 였고 '순례' 였다. 〈중략〉

황룡사 역사문화관에서 잘 정리된 기록과 입체영화를 본 경험도 원효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실감나게 했다. 생생하게 재현된 당시의 풍경 속에 살아있는 원효가 걸어 들어왔다.

권력에 등 돌리고 일자무식의 민중들을 위해 춤을 추었던 원효. 그날 밤 함께 읽은 원효의 오도송에서, 우리는 그 시절 신라 사람들의, 그리고 그날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졌다 불타버린 황룡사의 흔적을 새겼다. "세상은 오직 마음이요, 모든 대상은 분별의 마음일 뿐이네. 마음밖에 대상이 없는데, 어찌 다른데서 구하리요."

기억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땅이 갖고 있는 기억도 있다. 핏줄이 갖고 있는 기억도 있다.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는 기억도 있다. 원효에 대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터이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그와 요석공주의 사랑에 대해서, 무애행에 대해서, 일심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하고 토론하고 확인했다. 각자의 마음속에 원효를 한 사람씩 모시고 갔다. 우리가 원한 것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만족한 여행이었다.

社說

지하철 풍경소리 불사 도와야

1999년부터 약 20년간 지하철 역사 내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포스터로 문화포교를 이어온 비영리단체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가 전국지하철 게시판 교체라는 대대적인 불사에 나섰다.

풍경소리는 1988년 시작된 개신교단체 교통문화선교협의회의 '사랑의 편지' 에 이어 불교계 문화포교와 시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조직됐다. 사실상 '사랑의 편지' 후발주자였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지하철서는 풍경소리가 먼저 정착하는 등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읽을거리로 널리 알려졌다. 2001년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하철 한 량을 한시적으로 빌려 80일간 '봉축열차' 를 운행하고, 2004년에는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불교문화체험전을 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포교를 이끌었다.

하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르며 과학기술은 급격히 발달했고, 무엇보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풍경소리 글귀는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졌다. 이로 인해 후원 또한 줄어들어 20주년을 위한 새 사업을 앞두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매월 교체하는 전국 지하철 게시판 포스터도 자원봉사자 100여 명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있다.

지하철 풍경소리는 출범 당시 불교계의 전폭적인 관심을 받았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스님은 풍경소리 사업 설명을 듣고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고 전한다. 지금은 어떠한가. 풍경소리가 겪는 철거 위기 소식에도 잠잠했던 불교계다. 그래도 풍경소리는 내색하지 않은 채 꿋꿋하게 버텨왔다. 이제는 불교계가 소중한 문화포교 방편을 지키기 위해 나설 차례다.

얼굴없는 보살이 되자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다. 이 시기가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미담들이 언론 매체들을 통해 보도된다.

18년째 돼지저금통에 기부하는 전북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의 '얼굴없는 기부자' 의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까지 5억여 원의 기부금을 주민센터에 전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는 6년째 쌀을 전달하는 익명의 농부도 있다고 한다.

최근 동국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동국대에 따르면 12월 5일 본인의 이름을 절대로 밝히지 말아달라는 불자가 대외협력처를 방문했다.

그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2억 원을 쾌척했다. 독실한 불자인 그의 자비행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지난 2009년 3억 원, 2017년 2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태도였다. 장학금 기부가 "부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 이라고 밝힌 익명의 불자는 "기부는 절대 대가를 바라면 안된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닌 부처님 가피로 얻은 것이기에 수입의 90%를 보시하고 있다"고 했다.

동국대는 기부금을 기부자의 뜻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부는 대가를 바라면 안된다"는 그의 말에서 '집착없이 베푼다' 는 '무주상보시' 의 진정한 의미를 만난다. 보시는 수행의 결실과 함께 구제받지 못한 세상의 모든 유정물을 구제해 준다는 이타의 서원(誓願)이자 이타행의 극치다.

어느 누구에게 드러내지 않으며 보시를 하는 사람이야 말로 진정한 보살이다. 올 연말 우리도 '얼굴없는 보살' 이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 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卍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